단기선교! 이렇게 하라!

백운교회 현철호 목사 (e91joy@hanmail.net)

최근 한국교회에는 엄청난 단기선교여행의 열풍이 불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방학과 직장인들의 휴가가 겹치는 7월 말에서 8월 초는 이른바 '단기선교여행의 성수기'라고 할 만큼 많은 교회에서 단기선교여행을 실시한다. 그런데 문제는 단기선교여행을 "시행하는 교회"는 많아졌는데 그 단기선교여행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필자는 해마다 단기선교 시즌이 되면 여러 교회로부터 효과적인 단기선교여행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는다. 그럴 때마다 단기선교여행을 기획하고 이끌어가는 책임자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모든 교회가 단기선교여행을 "잘 하고 싶어 하고", "잘 할 결심도 하고 있는데", 정작 단기선교여행을 프로그램으로만 접근을 했지 "선교란 무엇인지, 단기선교란 무엇인지"에 대한 신학적 기반이 없다는 것과 단기선교여행을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역풍(?)을 맞기 쉬운 단기선교.

그래서일까 필자는 여러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적당히 단기선교를 실시한 뒤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다. 그렇다. 사실 단기선교여행은 말 그대로 잘 준비하고 떠나야 한다.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단기선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소지가 다분히 많다. 왜 그럴까?

우선 단기선교여행은 많은 재정이 투자되는 사역이다. 가까운 나라로 가더라도 1인당 100만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된다. 재정을 100% 자비량으로 감당하던지, 어느 정도 교회에서 지원을 하던지 이 재정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또 단기선교여행은 많은 시간이 투자되는 사역이다. 물론 훈련다운 훈련을 제대로 안 하고 대충 떠난다면 모를까 제대로 준비를 하자면 적어도 출발 전 12주 전부터는 주 1회 이상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준비과정에 투자해야 한다. 출발 날짜가 임박해 올수록 모여야 하는 횟수가 많아지게 되어 있다. 3달 이상의 시간을 단기선교에 올인 해야만 하는 사역이 바로 단기선교여행이다.

그러므로 엄청난 재정과 엄청난 시간을 투자한 단기선교여행은 참가자들에게 투자에 부합하는 의미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당연히 그 단기선교여행은 개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어려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특히 단기선교여행의 주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은 '의미에 죽고 의미에 사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청년들에게는 더더욱 단기선교여행의 참된 의미가 머리로, 가슴으로 전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역풍을 맞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단기선교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단기선교를 진행하는 과정은 보통 시간적 흐름을 따라서 기획과정, 준비과정, 현지일정, 후속과정의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곳에서는 네 단계를 간단히 각각 언급하되 두 번째 과정인 “준비과정”에 보다 집중하고자 한다. 특히 “어떻게?”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단, 이미 나름대로 단기선교를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고려하기보다는 아직 단기선교를 잘 모르며 잘 안 되는 보통의 평범한 공동체에 눈높이를 맞춰서 이 “어떻게?”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론적이거나 너무 거창한 제안 보다는 바로 적용하고 따라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만을 다루어 보겠다.

A. 단기선교여행의 기획과정

필자는 단기선교여행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려면 우선 단기선교여행의 큰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은 방향성의 문제를 결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기획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연구자는 무엇보다 다음의 세 가지의 질문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그것은 첫째 “어디를?” 둘째 “누구와?” 그리고 셋째 “무엇을?”이다. 어디를 갈 것인가의 질문은 선교지를 정하는 것이다. 누구와 함께 단기선교여행을 할 것인가의 질문은 단기선교여행의 중요한 파트너인 선교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의 질문은 단기선교여행의 목적과 목표를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1) 선교지와 선교사 결정하기

단기선교여행의 기획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선교지와 선교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전문 선교단체가 아닌, 개체 교회에서 단기선교여행지를 정하는 것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일이다.

먼저 개체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있다면 그곳을 단기선교여행지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한 선교사는 교회와의 연관성에 있어서도 가장 좋으며,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교회는 파송을 하고 지속적으로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으며, 보내는 선교사로 공동체가 마음을 모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선교사의 경우에도 단기선교여행팀을 통해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며 장기선교에 필요한 지원이나 도움을 단기선교여행팀을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개체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없는 경우, 즉 연계할 선교사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면서 선교지 및 선교사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첫째, 목적에 부합한 곳을 찾는다. 공동체의 단기선교여행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선교지를 결정한다. 단 국가에서 여행금지구역을 정해놓은 나라는 단기선교여행팀에게는 역부족이라 생각하기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둘째, 만약 단기선교여행이 처음인 공동체라면 경제적, 언어적, 사역적으로 부담이 없는 선교지를 찾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면 항공료 및 체제비가 적은 곳, 가급적이면 영어가 통하는 곳, 선교활동에 제약이 없는 곳이 좋겠다. 왜냐하면 단기선교여행을 처음하는 공동체에게는 단기선교여행의 성공 자체가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종교권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 모슬렘권(중동,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인도

네시아 등), 불교권(인도차이나 지역 일대, 티벳, 몽골, 일본 등), 힌두권(인도, 네팔 등) 등 종교권을 고려하여 단기선교여행지를 선정할 수 있다.

넷째, 선교단체나 교단의 선교국의 추천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섯째, 특별히 선교지를 정하기 어렵거나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단기선교여행팀이라면 전문 선교단체의 단기선교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단기선교여행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타교회와 연합하여 떠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단기선교여행을 떠나는 공동체의 지도자는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선교지와 선교사를 잘 결정해야 한다.

2) 단기선교여행의 목적 정하기

일단 단기선교여행을 떠날 선교지와 선교사가 결정되었다면 그 다음으로는 단기선교여행의 목적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선교여행은 많은 문제가 생긴다. 선교라는 이름으로 가지만 실제는 여행수준에서 그칠 수도 있다.[1)]

단기선교여행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 이유는, 그 목적에 따라 단기선교여행의 준비과정이 계획되고, 예산이 정해지며, 또한 사역적 열매와 보람, 참가자들의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선교여행의 목적은 추상적이지 않은, 분명한 초점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참가하는 헌신자들과 교회 공동체에 그리고 현지 선교사와 현지에 유익이 되는 것으로 세워야 한다.

일반적으로 단기선교여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구분된다. 첫째는 단기선교여행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며, 둘째는 그와는 반대로 단기선교여행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기획과정에서 단기선교여행의 목적을 정할 때에는 참가자와 교회 공동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단기선교의 목적에는 일반적인 두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선교여행에 대한 관심과 비전을 동원하기 위한 단기선교여행을 자체를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단기선교여행에 대해서 낯설고 경험이 없을 때 보통 갖게 되는 목적이다.

둘째, 단기선교여행에 대한 경험이 있으며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단기선교여행 사역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단기선교여행에 대한 경험이 있으며, 지속적인 단기선교여행을 통해서 선교지의 현지 선교사를 지원하고, 아울러 선교팀의 성장과 훈련을 기대할 때 가질 수 있는 목적이다.

필자가 이전에 사역했던 아현교회의 경우에는 2001년부터 매년 미얀마로 단기선교여행을 갔었다. 처음 2001년 미얀마로 단기선교여행을 떠날 때의 목적은 "미얀마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의 사람, 미얀마의 땅, 미얀마의 영적 상황을 보고 정탐한다는 구체적 방향이 잡혔고 이러한 목적으로 가능한 한 미얀마 내의 여러 도시들, 주요 장소, 사역지 등을 방문하는 정탐 위주의 일정이 준비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반면 2006년 단기선교여행을 갈 때에는 아현교회에 더 이상의 정탐은 필요 없었다. 현지 선교사와 의논하여 미얀마 감리교 신학교를 섬기는 것이 중요한 목적으로 결정되었고, 단기

---

1) 한철호, "단기선교를 통해 장기적 열매 맺기" 『기독교세계』 2011년 7-8월호. 6.

선교여행팀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미얀마 신학교에서만 머무르며, 총 40여명 되는 신학생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친구가 되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비시키는 사역(주로 어린이사역)을 준비하여 시행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이 분명한 목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기획과정에서는 “무엇을?”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명확하게 세워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단기선교여행의 목적은 분명해야 하며 공개적으로 선포되어야 한다. 교회 공동체가 그 목적에 함께 공감할 때, 단기선교여행은 보다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수행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단기선교여행의 세부적인 목표 세우기

단기선교여행의 목적이 정해졌다면 이제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현시켜가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적인 목표를 정해야 한다. 즉 포괄적인 목적 하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들이 세워져야 한다. 예를 들어 연구자는 아현교회에서 미얀마 단기선교여행을 반복해서 실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들이 세워졌고 그대로 단기선교여행을 실시했다.

첫째, 미얀마 감리교신학교 신학생들과 친구가 되는 것.
둘째, 미얀마 감리교신학교 신학생들의 필요를 채우며 구비시키는 것.
셋째, 미얀마 교단 찬양팀에게 필요한 악기, 재료 등의 물품을 전달하며 지원하는 것.
넷째, 미얀마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다섯째, 선교팀 각 개인을 선교훈련을 통해 복음증거자로 헌신케 하는 것.
여섯째, 선교팀원들 간의 관계훈련.

이와는 달리 2007년 실시한 스리랑카로의 단기선교여행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세웠었다.

첫째, 스리랑카를 “보고 배우는” 것.
둘째, 선교사들과의 땅밟기 및 영적전쟁.
셋째, 현지 교회와 연계한 중보기도와 노방전도.
넷째, 선교사님들의 영적 회복을 위한 섬김과 격려.
다섯째, 선교팀 각 개인을 선교훈련을 통해 복음증거자로 헌신케 하는 것.
여섯째, 선교팀원들 간의 관계훈련.

이와 같은 단기선교여행의 목표를 세우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지 선교사와의 긴밀한 협력이다. 왜냐하면 단기선교여행의 목표는 선교지의 현실과 동떨어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단기선교여행은 선교지의 상황과 부합되어야 하며, 당연히 선교사들의 사역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단기선교여행은 더 이상 선교일 수 없으며, 그것은 자기만족의 행사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B. 단기선교여행의 준비 및 훈련과정

단기선교여행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이 확정되었다면 이제는 출국 전까지의 단기선교여행 준비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연구자는 이 과정이 단기선교여행이 진정 효과적인 단기선교여행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단기선교여행의 성공과 실패는 이 준비 및 훈련과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결정

된다고 연구자는 생각한다. 단기선교여행의 준비 및 훈련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한다.

1) 준비 및 훈련 일정 정하기

단기선교여행은 매년 같은 선교지를 간다고 하더라도 매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매번 구성되는 선교팀원들이 다르고, 선교지의 상황이 매번 달라지고, 선교지에서 만나게 될 현지인들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선교여행을 준비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필자는 단기선교여행을 진행할 때 대략 12주 정도의 준비기간을 정한다. 연구자의 경험으로는 12주가 안되었던 단기선교여행은 사역적 측면이나 관계훈련에 있어서 부족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약 12주의 훈련은 매주 3~4시간 정도를 활용하게 된다. 필요에 따라 더 모일 수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요일과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절대적으로 엄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기선교여행팀 모집하기

훈련 기간을 약 12주라고 생각할 때 공동체에서는 출발을 기준으로 약 5개월 전부터 광고하고 팀원 모집을 해야 한다. 물론 이때에는 단기선교여행에 대한 홍보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단기선교여행팀 참가자의 규모는 대략 지도자를 포함해서 10-15명 정도가 좋다. 10명 이하의 인원들은 결속력이 쉽게 다져지지만, 사역에 있어서 개인별 무게가 커지기 때문에 쉽게 지치게 되는 약점이 있다. 또한 반대로 15명이 넘는 인원은 사역적으로 가벼운 무게를 감당할 수 있지만 오히려 집중이 어렵게 되며, 결정적으로 서로의 관계 훈련에 있어서 소위 “끼리끼리”의 약점이 심각하게 드러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20명 이상의 규모가 함께 단기선교여행을 진행하게 된다면 팀을 적절하게 나누고, 사역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각 사역을 팀별로 나누어서 분담하게 하는 것이 좋다.

준비모임이 시작된 후에는 팀원을 추가로 받지 않는 것이 좋다.

3) 항공권 예약을 위한 준비사항

단기선교여행팀의 지도자는 팀원이 모집되면 가장 먼저 항공권에 대해서 민감하게 움직여야 한다. 왜냐하면 항공권은 일찍 예약할수록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단기선교여행에 필요한 재정 중에서 항공권의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단기선교여행의 경험이 많은 공동체나 지도자라면 직접 저렴한 항공권을 찾아보고 구입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신뢰할 수 있는 여행사에 의뢰하여 항공권을 구입한다.

단기선교여행팀의 팀원이 모집되면 항공권 예약을 위해서 팀원들의 여권정보를 수집해 놓는다. 또한 방문하는 선교지에 따라 입국에 필요한 비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비자발급 준비도 병행해서 한다.

4) 단기선교여행 준비 및 훈련 내용

a. 선교지 리서치

리서치란 말 그대로 단기선교여행을 떠날 선교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리서치의 주제는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교지가 몽골일 경우에는 몽골의 정치, 경제, 역사, 교육, 종족, 종교, 문화, 가정, 자연환경, 최근 언론기사, 젊은이 등의 주제를 리서치한다.

이런 리서치의 장점은 리서치를 통해서 선교지를 실제로 더 자세히 알아가고 마음으로 품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전략적인 중보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실 단기선교여행을 앞두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품어야 한다고 수없이 말하지만 기도가 실제로 되려면 기도꺼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기도할 수 있다." 이 리서치를 통해 단기선교여행에 참가하는 팀원들은 선교지에 대해 하나 하나 실제로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선교지와 그 땅의 사람들을 가슴에 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그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리서치는 정기적인 단기선교여행 준비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리서치를 실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선교팀 모임 초반에 인원에 따라 리서치 내용을 분담한다. 인원에 따라 팀으로 엮어도 좋고 개인별로 담당해도 된다. 첫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리서치 제목들을 준비하고 담당하도록 한다. 그리고 매주 정기모임 시에 리서치를 발표하도록 한다. 리서치는 A4 용지 1-2장 정도의 분량으로 정한다. 내용이 너무 길면 모임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다. 리서치 담당자는 내용과 연관해서 중보기도 내용을 결정하도록 한다. 기도제목은 세 가지 정도가 적당하다. 그리고 리서치 후에 그 기도제목을 바탕으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필히 갖는다.

b.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2)]

필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란 책이 단기선교여행 훈련에 있어서 교과서로 삼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이 책의 구성이 세 가지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데 바로 예배, 영적전쟁, 중보기도가 그것이다.

보통 일반적인 선교지에 단기선교여행팀이 갔을 때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 세 가지이다. 예배가 무너져 있는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 선교지의 곳곳에서 현지 주민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영적상황과 맞서 영적전쟁의 선봉에서는 것, 그리고 결렬된 틈 사이에 서서 그 땅을 위해, 그 땅의 백성들을 위해, 선교사와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단기선교여행팀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런 면에서 하찾사를 하는 것은 단기선교여행팀의 영적무장을 위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준비모임을 하는 기간 동안 특별한 강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공동체라도 이 하찾사를 통해 단기선교여행에 필요한 기초적 강의를 대체하는 효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하찾사를 실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리서치와 마찬가지로 이 책의 세 가지의 주제를 세부 챕터별로 나누어서 팀 인원수에 맞게 나누어 맡긴다. 그리고 진도에 따라 모든 팀원은 이 책을 읽어오고, 리서치와 마찬가지로 담당자는 매주 정기모임 시간에 A4용지 한 두 장에 내용을 요약해서 발제한다. 그리고 기도제목 1-2개 정도를 뽑아온다. 발제 후 서로 느낀 점들을 나누거나 기도제목을 바탕으로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갖는다.

하찾사를 나누는 시간 시간은 팀원 모두가 하찾사를 읽어오기 때문에 발표에는 큰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발표는 각 챕터별로 10분 정도가 적당하며 중보기도까지 전체 20분 정도가

---

2) 이 책은 한국 YWAM 대표였던 홍성건 목사가 지은 책으로 1998년에 예수전도단에서 출판하였다. 이후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줄여서 '하찾사'로 표기하기로 한다.

좋다.

c. 팀사역

단기선교여행에서의 팀사역이란 모든 단기선교여행에 참가한 모든 팀원들이 각자 은사와 열정에 따라 한 가지 이상의 역할(Job)을 맡고 그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함으로써 단기선교여행팀이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팀원의 숫자에 따라 역할(Job)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는데 대표적인 역할(Job)로는 팀 리더, 찬양인도자, 회계, 서기, 중보기도, 타임키퍼, 라스트키퍼, 작업담당, 섬김, 데코, 의료, 촬영, 물품관리, SUM 등이 있다.

각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① 리더 - 리더는 단기선교여행의 모든 일정을 이끌어 간다. 준비훈련기간 동안에는 팀 모임을 진행하며, 역할분담과 사역 조율을 전체적인 방향에서 관찰하고 진행한다. 특별히 팀원들의 목회적 돌봄을 가장 중요하게 담당해야 한다. 또한 관계훈련에 있어서 팀원들 간의 화합을 지향한다. 항공권 예약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하며 현지사역을 위해서 현지 선교사와 긴밀한 연락을 계속해서 주고받아야 한다. 현지사역 시에는 아침모임과 저녁모임을 이끌어야 한다.

② 찬양인도자 - 찬양인도자는 모임 시에 예배를 담당하는 역할이다. 경험상 찬양의 은사가 있으며, 공동체를 찬양으로 이끌 수 있는 지체가 탁월하다.

③ 회계 - 단기선교여행팀의 모든 재정을 담당한다. 회계는 리더의 권위로 세우는 것이 좋다. 리더는 정확하고 꼼꼼한 지체를 선별해서 회계를 일임하며, 사람이 없다고 해서 리더가 회계까지 맡는 일은 없어야 한다. 회계는 선교팀 통장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며, 특별히 후원자 명단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④ 서기 - 준비훈련 일정과 현지사역의 내용을 세밀하게 기록한다. 또한 팀 기도편지, 선교팀 핸드북과 선교 후 보고집 제작 등을 총괄한다. 준비훈련 기간에는 일지 등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현지에서는 작은 수첩을 휴대하여 기록하는 것이 좋다.

⑤ 중보기도 - 팀 안에서의 중보기도 담당자는 팀원들의 중보기도 내용을 기록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담당하는 역할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⑥ 타임키퍼 - 사람이 모이게 되면 가장 지켜지지 않는 것이 시간이다. 타임키퍼는 모일 시간을 미리 알리고 회집하는 역할을 하며, 현지에서 기상시간과 취침시간, 회집시간에 민감하게 움직여야 한다. 타임키퍼는 형제와 자매로 분류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자매들의 경우, 아침회집 시간에 늦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선교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은 알람시계를 준비한다.

⑦ 라스트키퍼 - 모든 모임의 뒷정리를 담당한다. 모임이 끝나면 정리와 정돈이 필수인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에게 분담하여 지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이다. 특별히 준비모임 시에 사용하게 되는 모임장소는 공공장소일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에어컨, 난방, 열쇠, 책상정리 등 세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⑧ 섬김(Hospitality) - 섬김의 역할은 선교팀원들에 대한 사랑의 돌봄이다. 후원자들에게 받은 간식, 팀재정으로 구입한 간식 등을 담당하며, 준비모임이나 선교지에서 리더의 허락 하에 간식을 나누고 교제의 시간을 이끌어 간다.

⑨ 데코 - 선교팀의 홍보에 필요한 피켓이나 기도후원자 현황판, 선교지에서의 애찬식,

귀국 후 선교현장을 알리는 알림판 등을 제작한다. 가장 많은 일이 주어지게 되는데, 혼자 하기 보다는 둘 이상의 사람이 함께 감당하면 좋다.

⑩ 의료 - 선교지에서 의료함을 관리하며 아침저녁으로 팀원들의 상태를 돌본다. 선교지에 가면 배탈이나 설사, 감기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들을 돕는 역할을 감당한다. 의료물품이 제공된다면 잘 관리하고, 팀 재정으로 사야한다면 필요한 목록을 만들어서 적당한 양을 구입하도록 한다. 지사제, 변비약, 상처치료제, 해열제, 소화제, 배탈약, 감기약, 밴드, 반창고, 붕대 등이 필수이다.

⑪ 촬영 - 선교지에서 행해지는 모든 중요한 사역들을 담는 역할을 한다. 비디오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가 필수이며, 돌아와서 보고예배 때에 보고영상을 제작한다. 촬영시 유의해야 할 점은 너무 많은 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을 담아내도록 한다. 비디오의 경우 영상제작을 고려해서 촬영해야 하며 너무 많은 양을 촬영하게 되면 영상제작 시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음을 유의한다. 대신 사진촬영은 많이 할수록 좋다. 팀원 개인의 사진기도 활용할 수 있다. 보고영상은 10분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며, 기술적 탁월함보다도 선교지에서의 활동을 적절하게 보여줄 수 있는 수준만 되면 된다. 윈도우 무비메이커나, 베가스, 프리미어 등의 프로그램이 사용된다. 사전 지식이 없다면 준비기간 중에 미리 공부하는 것도 좋다.

⑫ 물품관리 - 사역에 필요한 모든 준비물을 챙기고 관리한다. 또한 출국과 귀국 시에 어지럽지 않도록 물품 목록을 만들어서 관리한다.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현지에서 해당 물건이 없어서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공동 짐을 챙길 경우, 항공운송을 고려해서 튼튼하게 포장해야 한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테이핑을 하고 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포장 시에는 사역별로 품목을 나누어서 관리하는 것이 편리하다.

⑬ SUM(Special Utility for Ministry) - SUM은 예수전도단에서 차용한 용어로써, 현지에서의 워십과 드라마 등을 말한다. 준비모임시에 SUM담당자는 리더와 상의해서 곡을 정하고 워십을 익히도록 한다. 일반적인 워십곡과 더불어서 한국적인 부채춤, 태권무 등을 해도 좋다. 드라마는 스킷드라마로 한다. 대사가 많으면 전달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기에 되도록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무언극으로 준비한다.

⑭ 작업 - 작업담당은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거나 짐을 옮길 때, 정리를 할 때, 기타 등등에 있어서 팀원들을 분류하고 일을 위임하는 역할을 한다. 10명 정도의 사람이 모이게 되면 일을 하는 사람만 하게 되고 움직이는 사람만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것을 적절하게 해소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⑮ 통역 - 해외로 출국하게 되면 일단 언어의 장애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공항에서와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생활영어를 익히도록 한다. 영어에 대한 기본 실력이 있는 지체가 좋다. 또한 현지에 가면 영어사용이 보편적인 나라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두 단계의 통역이 필요하게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모든 팀원들은 각각 맡은 역할(Job)을 나름대로의 권한을 가지고 준비기간 동안, 그리고 현지 일정 속에서도 각 역할(Job)을 감당한다. 이 팀사역을 통해 각 참가자들은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 리더가 되어 팀을 섬긴다.

이러한 팀 사역의 기회는 참가자 모두가 구경꾼이 아닌 주인공으로 단기선교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진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훈련을 통해 공동체성을 세워나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각 역할(Job)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쉽게 설명해주고 안내해 주어야 할 것이다.

d. 재정

단기선교여행팀의 인원에 따라, 사역종류에 따라, 항공권, 후속모임 일정에 따라 재정이 달라지는데, 리더는 전체 재정을 계획하고 그것을 인원수에 맞게 나눈 다음, 공지하도록 한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재정은 자비량을 원칙으로 하면서 자비량이 어려운 팀원들을 지혜롭게 배려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재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리더는 회계와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도록 한다. 또한 재정집행은 예산에 맞게 집행하되 언제나 리더의 허락 하에서 집행한다.

e. 현지사역 준비

여기서 말하는 현지사역이란 전술했듯이 장기선교사의 권고에 의해서 결정된 “무엇을?”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이다. 예를 들면 장기선교사가 이번 단기선교팀에게 “이러 이러한 사역을 할 예정이니 이런 사역준비를 하면 좋겠다”고 말한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러한 현지에서 활용할 사역을 총칭해서 흔히 SUM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지사역으로는 워십댄스, 융판동화, 풍선아트, 인형극, 풍물놀이, 드라마, 무언극, 놀이, 영화상영, 노력봉사활동, 선교지 성경학교, 노방전도 등이 있을 수 있겠다. SUM장의 지도 아래에서 필요한 사역을 결정하고 참가자 전원이 팀별로 역할을 맡아 그 사역 준비를 하는 것이다.

처음엔 어색하고 잘 되지 않지만 12주 준비기간 동안 연습하고 준비하면 나중에는 탁월한 실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역의 자료나 내용에 대해서는 단기선교를 잘 하는 가까운 교회들에 문의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지사역준비를 목적에 맞게 준비하되 기왕이면 잘 준비하는 것이 단기선교를 준비하는 동안 꼭 해야 할 일이다. 다음은 대표적인 현지사역들이다.

① 워십댄스 - SUM 담당자의 인도에 따라 준비기간 동안에 2-5곡 정도의 워십곡을 익힌다. 너무 완벽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엉성해서도 안 된다. 워십댄스는 몸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높여드리는 것을 팀원들이 인식하도록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자는 보통 비전, Give Thanks, 강한 용사, 예수 우리 왕이여 등을 워십댄스 곡으로 정했었다. SUM장은 미리 음악 CD, mp3 등을 준비한다.

② 융판동화 - 융판동화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통역을 준비하거나 미리 현지언어로 준비해야 한다. 융판동화에 쓰일 재료들을 미리 준비하고 현지 교회나 사역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분을 준비해 간다.

③ 노방전도 - 노방전도 시에는 사람을 회집할 때 주목을 끌기 위해서 몸찬양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간단하게 소지할 수 있는 악기들도 활용하기에 좋다. 또한 노방전도 시에는 개인적인 간증을 준비해서 현지인들에게 전달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현지 언어가 가능한 현지인 중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전도가 법적으로 금지된 국가에서는 함부로 전도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④ 봉사활동 - 만약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에 맞는 준비물과 옷 등을 준비한다. 목장갑 같은 것들은 필수라 할 수 있다. 봉사활동에 필요한 재료들을 현지에서 재료

들을 구입할 수 있는지와 가격 등을 문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역의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 무엇을 하더라도 현지 선교사와 긴밀한 연계를 바탕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선교지를 위한 바람직한 사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f. 예배와 기도훈련

단기선교여행팀 모임이 있을 때마다 시작은 언제나 예배로 시작한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란 찬양과 경배를 의미한다. 단기선교여행팀 모임의 예배가 너무 형식적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팀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잘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나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 모임은 찬양인도자가 이끈다.

또한 준비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기도를 훈련 받아야 한다. 찬양을 부르다가도 기도한다. 리서치를 한 뒤에도 그 내용을 붙들고 기도한다. 풀리지 않는 문제(재정문제, 휴가문제)가 있을 때 역시 기도한다. 선교지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주어지는 상황을 놓고 기도한다. 계획을 짜서 릴레이로 금식기도도 한다.

특별히 릴레이 금식기도는 준비모임을 시작한 뒤 보통 한 달 뒤부터 시작하면 좋다. 말 그대로 릴레이로 한 끼씩 금식을 해나가는데 한 끼 금식의 시간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다. 아침금식은 전날 저녁 식사 후부터 점심 식사까지, 점심금식은 아침식사 후부터 저녁식사까지, 저녁금식은 점심식사 후부터 다음 날 아침식사까지이다. 이렇게 금식을 하면 한 끼라고 하지만 절대로 만만한 시간이 아니며 제대로 금식다운 금식을 하게 된다. 금식을 마칠 때 다음 금식참가자에게 문자를 보내주면서 서로 격려한다. 이러한 시간배정은 언제나 두 사람 이상의 멤버가 금식을 하는 구조의 기도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 단기선교여행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g. 기타 행정적 준비

이 외에도 준비과정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은 많다. 서약서, 기도편지, 핸드북 등을 챙겨야 하는 행정적 준비가 필요하다.

① 서약서 - 단기선교여행에 참여하는 선교팀원들은 “단기선교여행 서약서”를 작성한다. 이것은 여행 시에 있을 수 있는 사건들과 개인적인 헌신의 내용들에 대한 것으로, 지장 혹은 자필 sign을 하도록 한다.

② 기도편지 - 기도편지는 팀 기도편지와 개인 기도편지를 준비한다. 팀기도편지는 팀원 사진과 선교국가, 그리고 팀을 위한 기도편지, 그리고 후원계좌를 구성해서 제작한다. 개인기도편지는 개인별로 준비하게 하되, 기도후원자와 재정후원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작한다. 개인사진과 선교여행의 동기, 중보기도 제목, 후원계좌 등을 내용으로 구성하면 된다. 물론 이 둘을 묶어서 하나로 제작해도 괜찮다.

③ 핸드북 - 팀원들이 선교지에서 휴대할 핸드북을 제작한다. 핸드북에는 선교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간단한 현지어, 사역일정, 그리고 찬양악보 등을 넣도록 한다. 휴대하기 쉬운 적당한 크기로 만든다.

h. 홍보와 동원을 위한 준비

단기선교여행이 직접 선교지로 가는 몇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사역

이 되기 위해서는 “홍보와 동원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교회에서의 홍보는 주보와 현수막 등이 좋다. 그리고 선교지에 대한 정보전달을 위한 홍보물 등을 만들어 게시하면 효과적이다.

후원과 동원을 위해서 선교바자회를 준비할 수 있는데, 바자회는 주일 오전예배 전후의 시간대가 적절하며, 이때에는 음식이나 음료, 아이스바 등을 준비한다.

중요한 것은 바자회가 지나치게 번거롭거나 팀원들을 지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연구자의 경험으로는 음식보다는 음료 등이 적절했다.

i. 리더의 팀 운영에 관한 사항

리더는 팀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사역적 측면과 더불어, 팀원을 잘 돌봐야 한다.

사람을 돌봄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면과 공동체적인 면이 있는데, 먼저 개인적인 면에 있어서 일대일 상담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일대일 상담을 통해서 팀원 개인별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지를 “코칭” 하도록 한다.

그리고 공동체적인 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견 취합과 수렴”이다. 리더의 권위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리더는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그것을 공동체에 맞게 논리적으로 적용하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 팀 운영에 있어서 항상 나타나는 문제는 각각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의 생각이 옳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에게 적절하게 설명되지 않은 채 진행이 되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리더는 공동체 안에서 팀원들 간의 의견을 잘 수렴해야 하며, 적절히 설명하고 맺고 끊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서 팀원들에게 끌려 다니는 것은 금물이다. 리더는 항상 친근한 권위자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앞서서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일차적으로 리더는 단기선교여행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유념해야 하는데, 지난번의 경험이 좋은 발판이 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대개 선교의 경험이 있는 지체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는 것이다. 물론 사역의 발전을 위해서 경험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절대적일 수는 없다. 따라서 리더는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며, 경험을 토대로 현재의 팀원들을 잘 이끌어 나가야 한다.

사역적 측면에 있어서 팀운영은 모임 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와 주중에 더 모여야 할 경우,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교준비 모임은 출국일이 가까워질수록 촉박하고 모자라게 된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매주 모임 때마다 사역준비의 진행을 검토해야 하고, 더 모여야 한다면 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해야 한다.

C. 단기선교여행지에서의 실행과정

단기선교여행지에서의 실행과정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즉 기상에서부터 아침식사까지의 아침시간, 그리고 저녁식사 전까지의 낮 시간, 그리고 저녁식사 이후 취침 전까지의 밤 시간으로 분류하여 생각할 수 있겠다.

1) 아침 시간에는 예배와 말씀묵상을 하라.

선교여행지에서 아침시간은 보통 새벽 6시-9시까지를 말한다. 이 때 해야 할 일은 예배와 말씀묵상과 나눔 그리고 아침식사이다. 아침에 기상하면 우선 세면을 하고 모여 찬양으로 먼저 예배를 한다. 그리고 말씀묵상(QT)시간을 갖고 그 묵상을 나눈 뒤 아침식사를 한다.

팀리더는 이 때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어려운 사람을 체크하여 격려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갖는다. 말씀묵상을 꾸준히 해온 공동체는 그 순서에 따라 본문을 정하면 좋겠고, 단기선교여행 기간만을 위하여서는 요한일서가 팀웍과 사랑에 관한 말씀이 많으므로 선택하면 좋다.

2) 낮 시간에는 현지 선교사의 인도를 따르라.

이때는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무조건 선교사의 인도에 따르는 것이 좋다. 연구자가 생각하는 좋은 단기선교여행이란 “장기선교사와 현지에 도움이 되는 단기선교여행”이다. 그러므로 단기선교여행을 하면서 현지일정 중 낮 시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선교사에게 그 결정의 주도권을 주는 것이 좋다. 그래야 단기선교여행팀도 좋고 장기선교사도 좋다.

현지에서 사역하는 장기선교사를 가이드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 현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절대로 “이렇게 합시다. 저기로 갑시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라고 겸손하게 물어보면서 현지 선교사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현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장기선교사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다.

만약 이러한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단기선교여행팀이 장기선교사에게는 오히려 선교의 장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에서 장기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홍성욱 선교사는 한 기독교잡지에 단기선교여행팀의 잘못된 모습과 관련하여 이런 글을 기고했다. “가난한 현지인들에게 동정으로 현금을 덥석덥석 쥐어주어 그간 눈물 나게 싸움의 목회를 하며 가르쳐 놓은 자존감을 순간에 변질시키고, 선교사 몰래 받은 돈이라 십일조 안 해도 모르겠지 하는 십일조 도둑을 만들어 놓고는, 그런 이른 지양해 달라고 부탁하면 ‘저렇게 가난한데 우리가 도와줘야지요’하며 자기만족을 채운다. 그런 일이 일러나면 가난한 빈민들은 한국인에게 불쌍하게 보이면 돈이나 물질을 얻을 것이라는 로또 같은 기대와 의존성을 갖게 되고, 심지어 연기와 거짓까지 동원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3)]

물론 때로는 열심히 준비해 간 내용들을 써 먹지 못해 속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급해 할 필요는 없다. 하루 아침에 세계 선교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보여주고 자랑하려고 엄청난 투자를 해서 선교지에 간 것이 아니다. 그저 몇 일 선교지에 다녀오면서 단 번에 모든 것을 하겠다는 잘못된 성취욕을 버려야 한다. 낮 시간은 고민하지 말고 현지 선교사의 인도에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3) 밤 시간에는 중보기도, 감사의 보물찾기, 팀원격려, 다음 날 사역준비를 하라.

중보기도는 철저하게 그 날 하루의 사역을 기반으로 한다. 즉 그 날 만났던 사람들을 위해, 그 날 방문했던 선교지를 위해, 그 날 있었던 특별한 사역을 위해 구체적으로 하루의 사역을 기도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다.

그리고 반드시 “감사의 보물찾기”를 하라. 이것은 사역 나눔을 하되 특별히 감사한 것, 은혜를 경험한 것 등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시간이다. 빡빡한 일정의 단기선교여행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괜히 마음이 어려워지거나 관계가 어

3) 홍성욱. “선교지,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인큐베이터”『기독교세계』. 2011년 7-8월. 19.

려워지기도 한다.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오늘 하루 일정 중에서 감사거리를 찾아 감사를 나누는 것이다. 한 명 두 명 감사를 나누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이 만들어진다. 어느 새 감사거리가 풍성해진다. 그러다 보면 불평거리, 어려움 등은 자연스레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며 세워주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다음 날 있게 될 사역을 준비한다.

특별히 선교지의 마지막 밤에는 애찬식을 하면 좋다. 1부는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식사, 쇼, 감사와 격려의 시간, 세족식 등을, 2부는 팀원들을 위한 시간으로 격려와 감사의 보물찾기 그리고 결단을 하는 시간으로 삼는다. 만약 현지에서 계속 현지식을 했다면, 이때에 식사는 한국식으로 해도 좋겠다. 미리 준비해 간 고추장이나 김치, 라면 등으로 식사 교제를 하면 분위기는 더욱 좋아진다.

D. 단기선교여행의 후속과정

단기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것으로 단기선교여행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후속과정을 잘 해야 한다. 후속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보고예배, 보고자료집 작성, 후원자 관리, 후속모임 등이다.

1) 보고예배 잘 드리라.

단기선교여행을 마치고 보고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마치 전쟁터에 나간 병사들이 돌아와 전리품을 나누는 것과 같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기도로, 재정으로 후원을 해준 남아있던 공동체에게는 단기선교여행의 은혜를 동일하게 나누는 시간이며 참가자들에게는 단기선교여행을 다시 한 번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보고예배를 위해서는 우선 사진전을 준비하면 좋다. 조금 큰 사이즈로 주요한 사역 사진들을 뽑아 간단한 설명을 붙여 전시하라.

또 영상보고를 하는 것도 좋다. 단 이 때 준비되는 영상의 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편집한다.

그리고 참가자들 가운데 3-4명이 간증을 한다. 이 때 주의사항은 3-4명이 각각 다른 한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간증을 다르게 준비한다는 것과 반드시 간증은 써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길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현지사역으로 준비했던 것 중의 한 가지를 전체가 한 뒤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면 좋다.

2) 보고자료집을 제작하라.

단기선교여행 준비과정에서부터 마지막 평가와 사진 등 단기선교여행의 모든 흔적과 자료가 담긴 보고자료집을 잘 남길 필요가 있다. 참가자들에게도 후원자들에게도 다음의 단기선교여행팀을 위해서도 이 자료집은 대단히 유용한 도움이 된다.

3) 후원자를 관리하라.

단기선교여행을 위해서 재정과 물품으로 후원을 해준 이들의 섬김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사진전에 사용한 사진 중에서 15-20장을 골라 미니앨범을 만들고 미니앨범과 보고자료집 그리고 감사편지를 함께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후원자는 분명 자신의 한 헌신에 대해 큰 의미를 얻게 될 것이다. 또한 후원자는 이후의 또 다른 단기선교여행에도 반드시 다시 후원에 동참할 확률이 높다.

4) 후속모임을 가지라.

단기선교여행 이후에는 반드시 후속모임을 가지는 것이 좋다. 공동체마다 상황에 맞게 모임을 갖되, 연구자의 경험으로 보면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6개월 동안이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때는 단기선교여행을 통해 받았던 은혜들을 다시 나누며, 그 이후에 들려오는 선교지의 소식을 나누고 중보기도 하는 시간으로 삼는다. 이 때 선교사를 위해 지속적인 연락과 작은 섬김이 만들어진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순풍의 돛을 달고 기적을 가져오는 단기선교

필자는 이 글의 서두에서 준비되지 못한 단기선교는 역풍을 맞는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 말은 반대로도 해석될 수 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단기선교는 엄청난 역량이 투자되는 사역이다.

그러므로 제대로 준비하고 실행한 단기선교는 실로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

개인의 경우에도 단기선교를 통해 가치관이 변하고 신앙의 태도가 바뀐 사람이 실로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공동체의 경우에도 단기선교를 통해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다.

역풍이 아닌 강력한 순풍의 돛을 달고 놀라운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단기선교인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과 공동체가 이러한 단기선교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